

‘도무송 씨’와 ‘나나인치 씨’를 만나다

한성우

인하대학교 한국어문학전공 교수

크고 작은 차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큰길을 벗어나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사람들이 주인인 골목길을 만나게 된다. 다닥다닥 붙어 있는 집들, 그리고 골목길을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비로소 사람 냄새를 맡을 수 있다. 살림집들이 몰려 있는 골목에는 사람 냄새와 사람 소리가 가득 차 있지만 꼭 그런 골목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요란하게 돌아가는 기계의 소리와 그 기계가 뿜어내는 기름 냄새가 넘쳐나는 골목도 있고, 드르륵 득득 소리에 맞춰 실밥이 날리는 골목도 있다. 수많은 인쇄업체들이 밀집되어 있는 서울의 충무로, 그리고 각종 재봉틀 판매상과 봉제업체가 몰려 있는 부산의 범일동이 그곳이다. 우연히 발길이 닿은 그곳에서 ‘도무송 씨’와 ‘나나인치 씨’와의 만남이 시작된다.

1. 충무로의 ‘도무송 씨’

지도 위에 흔하디흔한 지명으로만 남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오랜 전통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지역이 있다. 충무로가 그렇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시호를 따서 지은 동네 이름이지만 ‘충무로’란 이름을 듣는

많은 이들이 영화를 떠올린다. 60~70년대에 영화 제작사들과 극장이 충무로에 모여들게 되면서 충무로는 영화의 대명사가 되었다. 90년대 이후 영화 관련자들이 모두 이곳을 떠나고 이곳의 극장들도 복합 상영관(멀티플렉스 극장)들에 밀리면서 영화의 거리라는 말이 무색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무로=영화’라는 공식은 여전히 유효하다.

짧은 기간 동안 반짝했던 영화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지금도 충무로를 대표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인쇄가 그것이다. 충무로 뒤편 인현동 골목을 빼곡하게 메우고 있는 인쇄소와 각종 인쇄 관련 업체들이 충무로의 진짜 주인이다. 큰 업체들은 파주를 비롯한 다른 곳으로 많이 들 나갔지만 골목 가득 넘쳐 나는 인쇄기 소리와 잉크 냄새, 그리고 각종 종이들은 여전히 여전하다.

어쩌다 이 골목에 들어서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저 오래된 냄새가 좋아 걸음을 들여놓고 촌사람 서울 구경하듯 여기저기 눈을 돌린다. 그러나 역시 눈이 가는 것은 간판, 벽, 유리 등을 채우고 있는 글자들이다. 낯선 용어들이 수없이 흘러가는데 그중에 유독 친숙하게 느껴지는 이름이 눈에 띈다. ‘도무송’은 틀림없이 사람 이름이다. 수호지에도 나오고, 영화배우나 가수의 이름으로도 종종 듣는 ‘무송’이다. 그리 흔하지 않은 도씨 성을 가진 이지만.

그런데 ‘도무송’이 이름일 리 없다. 문패가 아닌 간판과 벽 글씨 여기저기에서 크고 작게 써 놓은 것이 이름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 서너 집 건너 발견되는 이름이니 동명이인이 그리 많을 수는 없다. 도무송이 누구일까, 혹은 무엇일까 궁금해서 눈에 띄는 가게에 들어가 다짜고짜 묻는다. ‘뭐 이런 게 다 있어.’라며 위아래로 훑는 시선 후의 통명스러운 손짓. 그래도 가끔 있는 일인 듯 커다란 기계를 가리킨다. 그런데 그 손은 종이 상자를 모양에 맞게 쿵쿵 찍어서 토해 내는 기계를 가리킬 뿐이다.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는 말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이에게

꼬치꼬치 캐묻는 것은 실례다. 기계의 모습을 눈에 넣고 그 다음에 있는 ‘도무송 씨’의 집을 기웃거리려 본다. 그렇게 몇 집을 순례하다 보니 공통점이 있다. 기계의 이마에 써어 있는 ‘Thomson’이란 회사 이름이다. 어떤 회사인지 스마트폰으로 검색해 보니 종이와 같은 평평한 재료를 눌러서 모양대로 따 내는 ‘유압 프레스’를 만드는 회사다.

이제부터는 국어 선생의 몫이다. 이 회사의 기계가 이런 작업을 하는 기계의 대명사가 되어 ‘버버리(Burberry)’나 ‘포스트잇(Post-it)’처럼 ‘툼슨(Thomson)’이 이 기계 자체를 뜻하게 된다. 이 기계가 일본에 도입되자 일본 사람들은 자기들 식으로 ‘도무손(トムソン)’으로 부른다. 일본에서 이 기계를 보고 기술을 배운 우리 기술자들은 이것을 자연스럽게 ‘도무송’으로 바꿔 받아들인다. 포르투갈 말인 ‘팡(Pão)’이 일본의 ‘판(パン)’을 거쳐 우리말의 ‘빵’으로 자리 잡은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의문이 풀리고 나니 두 가지 목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하다. 하나는 가슴 깊이 애국심이 넘치는 국어 순화론자의 목소리다. ‘도무송’ 또한 ‘노가다꾼들이 쓰는 ‘공구리’ 수준의 일본 말 잔재이다. 당연히 걸러 내야 하는 말이다. 다른 하나는 세련미 넘치는 영어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Thomson’을 ‘탐슨’이 아닌 ‘툼슨’이라고 하는 것도 모자라 ‘도무송’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구린’ 발음이다. 어떤 시각으로 보든 도저히 봐줄 수 없는 말이다.

비난이 그저 한바탕 욕에 그치지 않으려면 대안이 있어야 한다. ‘툼슨 프레스’ 혹은 ‘탐슨 프레스’가 본래의 발음에는 가까울지 모르지만 우리말 이라기 보다는 영어라는 문제점이 있다. ‘Thomson’이란 이름은 바꿀 수 없으니 ‘press’만이라도 바꿔야 하는데 ‘압축 기계, 압착기, 성형기, 압착 성형기’ 등 무엇을 동원해도 성에 차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제시한들 오랜 시간 동안 기름밥을 먹은 ‘인쇄쟁이’들이 받아들여서 쓸 것 같지가 않다. 이들은 그냥 ‘도무송’ 한마디로 모든 것을 끝내고 싶어 한다.

인정하지 않는 이들도 많겠지만 ‘도무송’은 전문 용어이자 은어이다.

보통 사람들이 이런 기계를 알 필요가 없으니 인쇄업 종사자들만이 이 용어를 쓴다. 전문가들답게 ‘톰슨 프레스 가공’이라고 쓸 수도 있겠으나 ‘도무송’이라는 이웃집 아저씨 같은 이름으로 쓰는 것은 이들만의 특권이다. 인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상황에서 ‘도무송’이 튀어나올 일이 없으니 이들이 딱히 남에게 피해를 줄 일도 없다. 어차피 찻잔 속의 태풍처럼 인쇄 골목에서만 쓰이는 말이니 우리말을 크게 오염시킬 일도 없다.

그런데 세상의 눈은 곱지 않다. 영어가 일본을 거쳐 들어와 우리말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는 이가 많다. 영어를 본래대로 가져다 쓰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식민지 경험을 알려 준 일본을 거쳐서 받아들인 것도 영 마음에 들지 않는다. 다른 나라 말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일본에 대한 뿌리 깊은 반감이 없다면 굳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도무송 씨’는 이래저래 시뻘거리일 수밖에 없다.

2. 범일동의 ‘나나인치 씨’

충청도 아산만 근처의 어느 시골 마을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자방틀’은 동네 사람들의 공동 재산이나 마찬가지였다.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졸라 곳간의 쌀 여러 가마니를 내어 주고 난 후 들인 것이니 주인이 있는 물건이지만 동네 사람 모두가 혼사나 상사 때 함께 썼다. 가름한 몸체에 쓰여 있는 상표 ‘SINGER’를 읽을 줄도 몰랐고, 가끔씩 어른들이 ‘미싱’이라고 하면 그건 그저 다른 물건을 가리키는 줄만 알았다. 나이가 든 후 서울 거리에서 가끔 마주치게 되는 재봉틀 판매점과 봉제업체의 간판과 창문에 쓰여 있는 글귀들을 보고도 그저 지나치기만 했을 뿐이다.

친지의 결혼식 때문에 오랜만에 하게 된 부산행, 범일동 골목을 지나면서 오랫동안 쌓아 두었던 의문을 풀지 않고는 못 견딜 상황이 되었다. ‘미

상'을 비롯해 '오바로꾸', '나나이치', '큐큐' 등 정체불명의 단어가 눈으로 쏟아져 들어온다. 재봉틀을 쓸 일도, 이 분야의 일에 종사할 일도 없지만 말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이 본업이다 보니 그래도 뜻은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재봉틀'의 다른 말인 '미싱'은 다소 엉뚱하다. 재봉틀을 영어로는 '소잉머신(sewing machine)'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 일본에 들어가서 알 수 없는 변화를 겪는다. 바느질을 뜻하는 '소잉'은 떼어 버리고, 기계를 뜻하는 '머신'을 '미싱(ミシン)'으로 둔갑시켜 버린 것이다. 세상에 널린 것이 기계인데 '기계'가 '재봉틀'을 가리키는 말로 탈바꿈된 뒤 우리도 그대로 가져다 쓰게 돼 본 뜻을 더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재봉틀 이름도 그렇지만 재봉 관련 용어들을 보면 알 수 없는 것투성이다. '오바로꾸'는 천의 올이 풀리지 않게 하는 바느질을 뜻하는 '오버로크(overlock)'에서 왔다는 것은 그나마 상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랍빠'나 '삼봉'은 이 분야에 들어가 일을 직접 해 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다. 단어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각종 도구를 사용해 결과물을 내기까지의 전 과정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말을 다 알아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뜻을 알지 못하는 단어는 비단 재봉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널려 있다.

그래도 궁금증을 견디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 봉제업체가 몰려 있는 거리를 지나다 보면 수없이 보게 되는 '나나이치'나 '큐큐'나 하는 표기가 그것이다. 답부터 말하자면 '나나이치'는 숫자 71을 일본식으로 읽은 '나나이치(なないち)'이고, '큐큐' 역시 숫자 99를 일본식으로 읽은 '큐큐(きゅうきゅう)'에서 온 것이다. 둘 다 단춧구멍을 가공하는 특수한 재봉틀인데 재봉틀 제조 전문 회사인 미국의 싱거(Singer)사에서 만든 재봉틀의 모델 번호가 각각 71과 99인 데서 만들어진 이름이다.

이렇듯 웬만해서는 알기 어려운 사연을 가진 말들이 심지어 'QQ'와 '나

나인치'라고 표기되기도 한다. 'QQ'는 '큐큐'와 발음이 같기 때문일 테고, '인치'는 '이치'를 길이의 단위인 '인치'로 착각한 결과일 것이다. 미제가 일제를 거쳐 토착화하면서 도무지 알 수 없는 말로 바뀐 것이다. 혹자는 말 그대로 '무(無)근본'에 '무식'의 소치라고 말할 수도 있다. '재봉쟁이'들에게 애국심 교육과 함께 영어 공부나 일본어 공부를 제대로 시켜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비난에 앞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재봉들의 원산지가 미국이고, 영어보다는 일본어의 잔재를 걸러 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우리말 순화 운동이니 아무래도 영어식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겠다. '싱어 나인티나인 버튼 홀 머신 가공'은 어떤가? 아니면 '싱어 71번 재봉틀 단춧구멍 가공'도 후보가 될 수 있다. 국어 선생들이야 이렇게 말하라고 하겠지만 얻는 이득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촌각을 다투는 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따지라고 하기도 미안하다.

애초에 이 말을 들여온 이가 국어 선생과 친했다면 '99번 단춧구멍 가공'과 '71번 단춧구멍 가공'으로 바뀌서 들여왔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랬더라도 결국은 '99번'과 '71번' 정도로 자리를 잡았을 것이다. '쟁이'들 사이에서 통하기만 하면 될 일인데 '쟁이'들에게 국어 선생이 되라고 강요할 이유가 없다. '99번'과 '71번'은 더더욱 암호 같으니 차라리 '큐큐'와 '나인치'가 소통을 하는 데는 나아 보이기도 한다.

3. 현대판 이두와 그들만의 세상

정의 사회 구현을 위해 법을 반드시 지켜야 하듯이 아름다운 말글 생활을 위해 '순화' 혹은 '바른말 쓰기'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에서 '무전유죄 유전무죄'란 말이 있듯이 말에서는 '유권유언 무권무언'

이 강요된 면이 있다. 순화와 바른 말 쓰기 운동은 사회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 의해 주도되어 주로 사회적 권력이 없는 이들에게 강요된다. 다른 말로 하면 배울 만큼 배운 이들이 못 배운 이들을 가르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소위 ‘노가다판’으로 불리는 공사 현장, 그리고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인쇄소와 실밥이 사방으로 날리는 봉제 공장은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들의 활동 영역이다. 이 분야의 기술을 배운다는 것은 각종 도구와 기계의 사용법을 배운다는 것이고, 그 사용법은 그 분야에서 앞선 기술을 가진 이들의 언어로 되어 있다. 근대 문물을 일본을 통해 받아들여야 했던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 분야의 용어가 온통 일본어로 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니 순화와 바른 말 쓰기 운동의 화살이 이들을 향하게 된 것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한 걸음 물러나 생각해 보면 정작 눈 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은 사회적 권력을 가진 이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의 학회에 가 보면 모든 용어는 영어로 되어 있고 우리말은 조사와 어미뿐이다. 심지어는 아예 영어로 발표하고 토론하기도 한다. 의사들은 문진은 우리말로 하면서 진료 기록지에는 알 수 없는 말로 휘갈겨 쓴다. 의학 드라마에서 의료인들은 영어로 된 용어로 소통하고 자막은 친절하게 그 뜻을 알려 주기까지 한다. 법조인들은 일제 강점기부터 써 오던 법률 용어를 지금까지도 쓰고 있다. 이들의 말에 대한 지적과 함께 이들 스스로도 말에 대한 자성이 있지만 그 목소리는 크지 않다.

신라의 설총이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이두(吏讀)는 놀랍게도 조선 말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그 명맥이 유지되었다. 그런데 이두는 한자로 쓰기는 하지만 온전한 한문은 아니다. 어순도 우리말식으로 바꾸고 필요하면 한문에는 쓰이지 않는 조사나 어미도 넣는 엉터리 한문이다. 오늘날로 치면 ‘콩글리시’와 같이 영어는 영어인데 우리끼리만 잘 통하는 영어와 비슷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급 관리들과 장사꾼들이 대대로 물려 쓰면서 그토록 오랜 기간 동안 명맥이 유지된 것이다.

오늘날 여러 분야의 ‘쟁이’들이 쓰는 말투를 이두에 빗대기도 한다. 전문 용어들은 모두 다른 나라말을 쓰면서 조사와 어미만 우리말로 하니 그리 표현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다. 인쇄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도무송’과 재봉 일을 하는 이들의 ‘나나인치’는 아주 낮은 단계의 현대판 이두라 할 수 있다. 의류업계에 종사하는 이들의 소위 ‘보그체’는 극단적인 이두의 단면을 보여 준다. 그리고 의사와 과학자 등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이들과 학문을 하는 이들의 전문 용어는 죄다 외국어를 써 이두의 또 다른 전형을 보여 주기도 한다.

그런데 현대판 이두가 그들만의 세상에서만 사용된다면 과도한 비난의 대상이 될 일은 아니다. 가끔씩 길을 가다 ‘도무송 씨’와 ‘나나인치 씨’를 만나기는 하지만 광고를 보다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를 만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 세계에 뛰어들지 않는 한 그 뜻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의 맞고 그름을 굳이 논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전문가들의 세상에서 정확하고도 빠른 소통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면 그들만의 세상을 인정해 줄 필요도 있다. 그들이 세상 밖으로 나와서 이런 말들을 쓸 일도 없으니 더더욱 그렇다.

4. 소금의 참된 맛

‘순수’를 첫 번째 가치로 여기는 이들에게는 우리말의 이러한 상황이 용납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애초에 ‘순수한 말’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살아 있는 한국어는 방언의 집합체이지 규범집에 있는 표준어가 아니다. 각 지역, 온 세대의 말들이 뒤섞여 우리말을 이루는 것이지 백옥같이 흰

우리말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나라 말에서 흘러 들어온 말도, 특정한 사람들 사이에서 쓰이는 말들도 우리말의 일부를 이룬다. 이 말들이 그들 사이에서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다면, 그리고 그 밖으로 흘러 나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우리말의 일부가 될 자격은 충분하다.

소금의 맛은 짠맛으로 대표되지만 ‘맛있는 소금’은 마냥 짜기만 한 소금이 아니다. 갯벌에서 만들어진 천일염에는 각종 잡성분이 섞여 있어 맛이 더해진다. 심지어 봄날의 송홧가루가 염전에 내려앉아 만들어진 송화염을 최고로 치기도 한다. 충무로에서 만난 ‘도무송 씨’나 범일동에서 만난 ‘나나인치 씨’가 정겹게 느껴질 수도 있는 이유다. 설 새 없이 종이와 천을 붙들고 씨름을 하는 이들에게는 더더욱 그렇다.

지금 충무로의 주인들이 후대에게 가게를 물려줄 때가 되면 ‘도무송 씨’ 대신 ‘뚝슨 씨’가 간판을 내걸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범일동에는 ‘Singer No. 71’과 ‘Singer No. 99’가 내걸릴지도 모른다. 이것이 싫으면 이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어야 한다. 그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소금에는 다른 맛도 느껴져야 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면 ‘도무송 씨’와 ‘나나인치 씨’와 함께 살아가는 것도 한 방법이다.

